

농어촌공사 광주지사, 저수지 안전사고 예방 선제적 대응

주남현 기자 | 승인 2026.04.22 13:41

안내판 정비, 현수막 게시, 마을 안내방송 등 계도 강화



농어촌공사 광주지사가 저수지에 안전 현수막을 게시하고 있다. /사진=광주지사

| 광주=한스경제 주남현 기자 | 한국농어촌공사 광주지사가 상춘객과 낚시인들의 저수지 방문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에 나선다.

광주지사는 대야제 등 48개소 관할 저수지 대상으로 '무단 낚시 및 상행위 금지' 계도 활동을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

광주지사는 사고 예방을 위해 ▲안내판 정비 ▲현수막 게시 ▲마을 안내 방송을 적극 활용해 방문객의 경각심을 높였고, 기타 금품수수 사고가 일어날 것을 대비해 상행위 금지 안내 현수막을 40여 개를 저수지에 집중 설치했다.

특히 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취약 저수지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 좌대 및 보트 사용, 낚시터 매매 등 무단 행위를 점검해 안전사고를 원천 차단했다.

또 농업생산기반시설 내 인명구조함, 안전펜스, CCTV 와 같은 안전대책시설의 상시 점검 계획을 수립해 안전 사각지대 해소에 적극 대처할 방침이다.



주남현 기자 tstart2001@sporbiz.co.kr